

북한, 미국 떠보기 안되니 文 정부 때리기?

29일 새벽 스킨드 미사일 발사 450km 비행...한국 사정거리 “새 정부 대북 기초 시험 차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북한은 무려 4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주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방적인 분석이지만 이번처럼 한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단기간에 미사일을 연거푸 발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다섯째인 지난 14일 북한은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북한 매체는 ‘화성-12’ 미사일의 타격 목표가 미국의 하와이와 알래스카라고 밝혔다. 북한은 1주일 후인 21일에는 사거리가 2000km 내외로 추정되는 ‘북극성-2’ 탄도미사일을 쏘



아 올렸다. 27일에는 국방과학원에서 개발한 지대공 요격미사일을, 29일 새벽에는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스킨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각각 발사했다.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는 북한 스스로 밝혔다시피 하와이·알래스카, 주일 미군기지 등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 전 발사한 지대공 요격미사일도 미국 항공모함에서 출격하는 전투기와 미사

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 주변 해역에 전개해 있고, 다음 달 초에는 로널드 레이건호까지 합류해 칼빈슨호와 합동훈련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29일에 발사한 스킨드 미사일은 한국을 겨냥한 무기로 분류된다. 따라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미국에 대한 반발인 동시에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새 정부 출범 후 며칠간 말을 아꼈던 북한은 지난 18일부터 문재인 정부를 향해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북한은 18일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를 내세워 문 대통령이 북한의 ‘화성-12’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한 것을 두고 ‘추태’라고 비난했다.

특히 “우리의 자위적 핵무력 강화조치를 시비·중상하며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도전해 나서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추호의 자비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며 위협 발언까지 쏟아냈다.

또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은 22일과 28일 문재인 정부의 특사외교를 비난하며 “외세의존병을 버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정철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대부분 대미용이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처럼 자주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새 정부의 대북 기조를 시험해보기 위한 차원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이어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핵-미사일 협상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다양한 미사일 발사를 통해 군사적 우위를 부각하고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당나라 창건 고조 이연

이연(李淵, 566-635)은 618년 당나라를 창건했다. 그는 덕으로 수양제 말기 천하가 혼란스럽자 거병해 새 왕을 세웠다. 후일 현무문의 난으로 3남인 이세민에게 양위했다.

그는 서위와 북주의 종신인 당국공이호의 손자로 선비족 계통의 무장이다. 566년 장안에서 출생했고 부친 이병이 사망하자 7세때 당국공 지위를 물려받았다. 조부 이호는 북위의 권신 우문태의 정변에 가담해 공적으로 팔주국에 올랐다. 그의 모친은 팔주국 집안인 독고신의 딸로 수문제의 독고군사적 우위를 부각하고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 그의 처 두씨 역시 선비족 군인 가문 출신이다.

차남 이세민을 상서령으로 임명하는 등 내각을 구축하였다. 조용조 법을 제정하고 개원통보를 주조해 화폐제도를 통일했다.

619년 중신 유문정을 모반죄로 제거했다. 그는 처형당하기 직전 “높이 나는 새가 사라지니 좋은 월은 쓰이지 않고 버려진다”며 자신의 뒤바뀐 처지를 한탄했다고 한다. 국자학, 태학, 4문 등을 설치하니 생원이 300명이나 되었다. 중신 손복가가 상소를 올려 주장하기를 “수는 그 허물을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천하를 잃었다. 달이 천하를 얻는 것이 쉬운 줄만 알고, 수가 천하를 잃은 것이 어렵지 않았음을 황후와는 자매 관계다. 그는 수문제의 처조카로 양제와는 외사촌 관계다. 그의 처 두씨 역시 선비족 군인 가문 출신이다.”

노벨 경제학상 피사리데스 “일자리 34% AI·로봇 대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석학 크리스토포로스 피사리데스(사진) 영국 런던 정경대 교수는 현재 820종의 주요 직업 가운데 34%가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데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앞으로 새로운 경제체제에서 다른 일자리 수요가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피사리데스 교수는 27일부터 사흘간 한국고등교육재단과 푸단(復旦)대가 공동으로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 ‘상하이포럼’에서 전통적 의미의 직업이 기계에 대체되더라도 의료건강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출현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1933년 경제학자 케인즈가 2030년께 고용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4시간이다.

그는 한국의 사례를 주목해 헬스케어 일자의 성장을 예견했다. 그는 “한국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취업 비중이 2000년대만 해도 2%에 불과했으나 건강 영역 지출이 지속 상승하며 지금은 6~7%까지 치솟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15~20%의 인구가 헬스케어 영역에서 일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독일로 날아간 ‘평화 나비’...IS 성폭력 피해자 위로

위안부 피해자 김원옥 할머니

전쟁 성폭력 중단 촉구 간담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원옥(89) 할머니가 28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이슬람국가(IS) 성폭력 피해자인 야지디족여성 마르바 알-알리코(24) 씨를 만났다.

‘전쟁 성폭력 피해’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은 시공을 초월한 이날 만남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잔혹한 전쟁범죄의 만행을 규탄하고 재발 방지와 평화를 일망했다.

재독 시민단체인 코리아협회, 일본여성이나사나티브베를린, 엠네스티 인터네셔널 등이 베를린 시내 한 시민공동체 회관에서 마련한 두 사람의 만남을 겸한 간담회에는 40여 명이 참석해 이들과 아픔을 나누고 연대 의지를 표실했다.

김 할머니는 알-알리코 씨에게 “견디기 힘들겠지만 잘 참아 나가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잘 참되(그러나, 그 경험에 관해) 말을 계속해서 후세에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할머니는 평양 출신으로서 1998년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유는, 후세 분들이 이런 끔찍하고 아픈 일을 저처럼 앉아서 당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는 때문”이라고 덧붙이며 알-알리코 씨의 손을 꼭 잡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원옥(왼쪽) 할머니와 이슬람국가(IS) 성폭력 피해자인 마르바 알-알리코씨가 28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한 시민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손을 맞잡고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러한 북부 지역에 주로 모여 사는 야지디족 출신인 알-알리코 씨는 2014년 두자매와 더불어 IS 대원들에게 끌려가 참담한 피해를 보고, 또 다시 성노예로 팔려간 사실도 전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다른 행사에서도 수많은 구타를 당하는 등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 자살하려고 까지 했으나, 이후 기회가 생겨 탈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김 할머니가 2015년 8월12일 자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내는 ‘영상일기’가 상영되는 동안에는 끝내 참고 있던 울음

을 터뜨리며 연신 손수건으로 물기를 훔치기도 했다.

영상일기에서 김 할머니는 “엄마, 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중략) 꼭 만나요”라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김 할머니는 13살이던 훗다운 나이에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가 온갖 고초를 겪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할머니와 동행한 한국진상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가 나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 실태를 설명하고 이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인정과 사죄, 법적 배상 등을 촉구하는 운동 현황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연합뉴스

왕조 창업...왕자의 난으로 뒷방 신세

신이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총명해 집문 양쪽에 두 마리 공작을 그려놓고 구혼자에게 두 개의 화살을 주어 공작의 눈을 맞추는 사람에게만 자격을 주었다. 오직 이연만이 두 발을 연속으로 명중시켜 혼인을 허락받았다고 한다. 양제 말기까지 그의 관직 생활은 평범했다. 문체때 자사직에 오르고 양제 즉위 후 중앙관직에 진출했다. 3차 만제의 고구려 원정이 실패하자 천하 민심이 들끓었다. 이 와중에 중신 양소의 아들 예부상서 양현감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 일로 양제는 대신들을 의심했고 이연도 감시 대상이 되었다. 617년 태원 유수로 임명되었다. 태원은 북방의 돌궐을 방어하는 요충지로 상당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다.

고조의 당면과제는 각지의 반란 세력을 정벌하는 것이었다. 낙양은 왕세충이 장악했다. 양제의 손자 양웅을 즉위시켰다가 폐하고 제위에 올라 양제라는 나라를 세웠다. 이말은 식량도 풍부한 낙양 주변의 낙구창에 근거했다. 그러나 왕세충에게 패하자 당에 귀순했다. 그는 산둥지방 평정을 이유로 장안을 벗어나 배신했지만 처형되었다. 왕세충도 결국 이세민의 공격을 못견디고 항복했다. 하북의 두건덕군과 사수에서 일전을 벌이자 이세민은 전군을 동원해 이를 물리쳤다. 당은 사실상 천하통일의 기초를 굳건히 했다.

617년 7월 유명한 태원기병(太原起兵)이 시작되었다. 614년 세 번째 고구려 원정이 실패하자 각지에서 반란이 속출해 천하는 균열할 상태에 빠졌다. 이말, 왕세충, 두건덕 등이 주요 군웅이었다. 3만의 군사를 동원해 수도 장안으로 진격했다. 11월 9일 장안을 점령했는데 진군 도중 각지의 호응을 받아 20만 대군으로 불어났다. 수양제의 손자 대왕 유를 공제로 옹립하고 연호를 의평으로 개원하였다. 대장군으로 정치·군사 대권을 장악했다. 618년 3월 양제가 측근 우문화급에게 살해되자 천하가 들끓었다. 측근인 배제과 유문정에게 율령을 정비해 무덕을 완성하고 장남 이연성을 황태자로

당양조의 기초가 튼튼해지자 후계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했다. 황태자는 이연성이었지만 천하평정의 공이 큰 차남 이세민의 아심이 컸다. 저에게 빼앗긴 태원을 탈환하고 왕세충과 두건덕을 패배시킨 것은 이세민의 큰 공적이었다. 고조는 그에게 천책상장(天策上將)이라는 칭호를 주어 존대자로 우대하였다. 이로 인해 양측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626년 6월 황궁의 현무문에서 정변이 일어났다. 장남 이연성과 3남 이연질이 힘을 합쳐 이세민을 제거하려 했는데 이를 간성으로 알아낸 이세민의 역습으로 권선과 원질이 살해되었다. 8월 고조가 되위하고 태종 이세민이 즉위했다. 고조는 태상황이 되어 대안궁에서 635년 생을 마감했다.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풍암동 중심 상가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격 1,700,000,000

장성 서산면 순현리 (공장)

대지 1361평 최저가 657,000,000
건물 372평 감정가 938,000,000

동구 대인동 근린주택 (4층건물)

토지 128평 최저가 885,000,000
건물 250평 최고가 885,000,000

나주 문평면 옥당리, 둔사

토지 1417평 최저가 224,000,000
건물 484평 최고가 321,000,000

화순 도곡면 천암리 (숙박시설)

대지 978평 최저가 993,000,000
건물 1294평 최고가 3,788,000,000

서구 화정동 원릉(화정역인근)

토지 94평 최저가 549,000,000
대지 157평 감정가 784,000,000

남구 서동 근린주택

토지 79평 최저가 553,000,000
건물 115평 감정가 553,000,000

운암동 기전빌라

22평형 6가구 (수액성 전용)
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용차 6,000만원 월세45만원

제일오피스텔 29층

감정가격 9,000만원
매매 6,300만원
보통급 500평 월세 25-40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